

# 전문대학 관광계열학생들의 진로 환경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areer opportunities of tourism majors of  
junior colleges

김 상 진\* · 양 신 철\*\*

## 【목 차】

|                     |          |
|---------------------|----------|
| I. 서론               | V. 결론    |
| II. 전문대학 교육과 외국의 사례 | Abstract |
| III. 전국 전문대학 현황     | 참고문헌     |
| IV. 전문대학 관광계열학생의    |          |

## I. 서론

교육은 百年大計라고 한다. 그 나라의 미래는 교육에 있으며 천연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인적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치열한 경쟁에서 생존하는 길이다. 21세기는 지식과 기술이 가장 큰 경쟁력이 되며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꾸준한 교육과 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고등교육기관의 전문대학은 산업현장에서 지식과 기술을 겸비한 중견 기술인을 배출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전문대학의 모태는 1964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전문기술 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한 중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5년제 실업고등전문학교이다. 그 후 경제성장과 더불어 많은 전문 인력이 필요하여 1970년부터 고등학교 졸업자를 대상

\* 경북대학 관광과 조교수

\*\* 경민대학 호텔조리과 전임강사

으로 하여 중견 직업인을 양성한다는 목표를 두고 2-3년제 전문학교가 설립되었다. 이 전문학교는 다양한 이름의 교육기간들이 난립하는 문제를 가져와 정부에서 1979년부터 지금의 고등학교 졸업자를 입학자격으로 하는 오늘의 전문대학으로 개편하였다.

전문대학이 설립된 지 25년이 지나 이제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산업 현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여 왔지만 아직까지 지위나 위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전문대학은 교육개혁 정책의 논의 과정에서 4년제 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하였고 불평등한 취급을 받아왔기에 전문대학 교육문제에 대한 사회적으로나 정책적인 관심이 늦게 제기되었다. 이런 과정에서도 전문대학은 질적 팽창보다 양적 팽창에 몰두하여 1980년에 128개에서 1990년에 117개교로 줄었다가 2001년에는 158개교로 증가하였으며 현재도 많은 대학들이 설립인가 신청하고 있는 현실이다.

신현석(2000)의 1990년대 전문대학 개혁정책의 분석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첫째, 전문대학의 위상은 제고되었지만 기능의 다양화와 특성화가 미흡하였고 둘째, 양적팽창에 따라 수반되는 교육제도와 여건을 갖추지 못해 전문대학 교육의 부실을 초래하였고 셋째, 직업기술교육간의 교육 및 연구의 연계망을 구축하여 현실화시키는데 미흡하였으며 넷째, 산학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모든 전문대학이나 학과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문대학이 안고 있는 내. 외부적인 여건에 따라 정상적인 패턴이 아니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특히 전문대학 입학자원의 부족현상으로 학교의 존폐가 걸려있는 문제인 만큼 소위 인기 학과를 중심으로 입학정원을 조정하는 정책을 각 학교들은 펴고 있다.

이에 따라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전문대학 관광계열학과의 신설 및 입학 인원 증가로 나타나고 있으며 무분별한 구조 조정으로 교육 현장뿐만 아니라 졸업 후 진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귀덕(2002)의 연구에서 관광계열학과에 진학하게 된 동기를 조사한 결과 첫째가 장래 직업(취업)을 고려해서 선택하게 되었다고 응답했으며 두 번째가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아서 선택하게 되었고 세 번째가 입학당시의 성적에 맞아서 선택했다고 응답했다.

이 같은 선택 동기에도 불구하고 관광계열학과 및 학생들에게 많은 문제점이 표출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광업체에서 필요한 인력보다도 과잉 배출 현상을 가져와 치열한 취업경쟁이 야기되고 있으며 둘째, 영세한 관광업체들의 인력 관리정책부실을 가져왔다. 셋째, 무분별한 확충 및 증원으로 부실한 교육여건이 조성되고 교육의 질적인 저하 등이 나타나고 있다. 넷째, 전문대학 진학을 순수한 직업기술인이 되기 위해 지원한 것이 아니라 4년제 입시에서 탈락한 학생들의 대안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적성과 흥미가 무시되어 학생들의 직업의식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외국의 전문대학 교육과정의 사례와 우리나라 전문대학의 관광계열학과 의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문헌적 연구와 통계자료 및 관광업체 인사담당자들과 면담을 통해 관광업 계의 인력정책과 현실을 조명하고자 하였다.

## Ⅱ . 전문대학 교육과 외국의 사례

### 1. 전문대학 교육에 관한 연구

1970년 우리나라에 전문대학이 설립된 이래 전국의 수많은 전문대학에서 전문 인력을 배출하고 있지만 전문성이나 경쟁력에서 업계가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이 같은 현실은 앞서 신현석(2000)의 연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다.

현재 전문대학의 역할론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는데 예전에 각 산업체에서 필요한 기초 업무 담당 인력의 충당을 실업계 고등학교나 인문계 고등학교 출신 중 대학 진학을 포기한 졸업생을 중심으로 충원하던 것이 근래에 많은 전문대학 출신의 졸업생들이 그 자리에 충원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실업계 고등학교의 존립 문제까지 대두되는 현상에 직면하고 있다.

전문대학의 교육 목적은 교육법 제47조에 명시한 바와 같이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 적인 지식과 이론을 교수·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와 사회 발전에 필요한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시대적인 요구로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전문대학 발전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정태용 외(1995)은 전문대학의 교육목적의 재정립, 학위수여방안, 수업연한 연장, 새로운 첨단학과 신설, 전공심화과정제도 도입, 등을 제시하였는데 현재 전문학사학위수여, 전공심화과정제도 도입, 수업연한연장(일부학과 3 년제 도입)등은 교육부의 정책으로 실시되고 있다.

김종철(1997)은 전문대학의 개혁방안으로 교육목적의 세분화와 미래지향적인 교육과정 의 개편, 예산지원증대, 설립기준의 강화, 학과 인가제도의 개선 등으로 전문대학의 새로 운 방향제시를 하였다. 또한 장석민(1997)은 개방화와 세계화에 적합한 새로운 직업교육체 제 구축을 요구하였다. 김태기(1998)는 직업교육의 위기를 인정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 기 위해서는 직업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신현석(2000)은 전문대학의 문제점을 파

악하여 개혁을 강조하였으며 최귀덕(2002)은 관광계열학생들의 직업의식을 분석해서 특성화된 진로지도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의 공통적인 주장은 전문대학이 안고 있는 교육과정이나 운영방안들의 개혁적인 요소가 많다는 것이 피력되어 있으며 시대 변화에 맞는 전문기술교육의 역할을 전문대학에서 실시되어야 한다는 부분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전문대학의 실정은 열악한 학내문제도 있겠지만 직업선택에 대한 성숙한 주위 환경의 조성이 되지 않은 부분도 무시할 수 없다. 전문대학 진학생들이 4년제 대학의 진학 실패의 대안으로 선택하거나 일부 인기학과에 몰리는 현상, 또한 진학수요의 감소로 면접이 없이 무작위로 입학할 수 있는 기회는 진학생들의 개인적인 특성이나 적성이 완전히 무시될 수밖에 없다.

## 2. 외국의 전문대학 사례

### 1) 미국

미국의 2년제 대학(Community College)은 주로 공립이며 주정부의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수업료는 4년제에 비해 저렴한 편이며 전문기술과 기초 학문과정을 교육한다.

전문대학의 교육과정은 준학사 학위 과정, 디플로마 및 자격증과정, 편입학과정, 비학위 과정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준학사 학위과정은 4년제 진학을 위한 과정과 취업을 위한 과정으로 나누어진다. 디플로마 및 자격증과정은 준학사 학위 과정보다 짧은 기간동안 적은 학점을 이수하고 디플로마 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이다. 편입학과정은 4년제 대학의 1,2학년과정을 이수하는 형태로 4년제와 교육과정이 유사하여 학점을 인정받으며 편입학을 할 수 있는 과정이다. 마지막으로 비학위 과정은 대부분 전문대학에서 공통적으로 배우는 교양과정, 현직에 있거나 신기술 습득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하거나 전문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중간 관리자급에 취업을 원하는 사람을 교육하는 직업과정, 성인이나 지역봉사프로그램인 성인 교육과정으로 나누어진다.

미국의 전문대학은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형태의 전문 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 취업을 위한 교육이거나 편입을 위한 교육이든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실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영국

영국의 전문대학 수준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들은 계속교육대학(Colleges of further education), 기술대학(Colleges of technology), 공업대학(Technical colleges), 상업대학

(Colleges of commerce), 예술대학(Colleges of art)등이 있다. 특히 계속교육대학(Colleges of further education)은 평생학습을 실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직업교육 훈련을 강조하고 있으며 원격 학습을 통해 언제 어디에서나 학습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원격 학습은 전화, 팩스, 이메일을 통해 강사와 일대일로 이루어지며 워크숍은 토요일에 이루어진다(정태화 외, 2000). 영국의 교육제도의 특징은 지방 교육당국의 권한이 강화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처럼 졸업장 개념이 아니라 자격증 개념이다. 따라서 일반인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직업 교육훈련 과정을 통해 자격증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평생직업 교육훈련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 3) 호주

호주의 기술전문대학은 주립기술전문대와 사립 기술전문대로 구분되며 우리나라의 전문대학과 유사한 TAFE(Technical And Further Education: 주립기술전문대학)가 있으며 이 제도는 호주의 도시 단위로 개설되어 있는 독특한 교육훈련 제도이다. 교육과정은 전문대학 수준이지만 교육기간이 몇 주에서 3년 까지 다양하며 등록학생의 연령분포도 광범위하여 평생교육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학사운영은 매우 유연하고 탄력적이며 취득자격의 유형이나 이수시간, 기간 등이 다양한 교육과정이다. 또 다른 특징은 대학이나 유사한 직업교육훈련기관과 협약을 통해 학점 호환체제와 기술전문대학의 학점을 인정해주고 다른 훈련기관이나 학교, 혹은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해주는 방식인 선행학습 인정체제가 잘 되어 있다. 이 같은 체제가 잘 이루어 질수 있는 것은 교육훈련과정이 전국적으로 표준화되어 있고 학점인정과 사전학습의 인정을 통해 불필요한 학습의 중복을 없애고 교육기관의 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있기 때문이다.

### 4) 외국의 사례에서 주는 시사점

외국의 전문대학이 추구하는 교육과정이나 방법에서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계층과 교육과정의 다양화이다. 재학생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우리의 교육과정과는 다르게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과정들을 신설하여 여건이 성숙되면 언제든지 교육을 받을 수 있거나 재교육의 장이 되는 것이 특징이다. 둘째, 불필요한 교육비용이나 시간을 절약하는 것이다. 학점인정이나 사전학습의 인정과 같은 각 교육기관간의 상호연계가 되는 교육을 통해 중복교육을 줄이며 수요자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각자가

이수하는 형태이다.

양적인 팽창만 추구하는 우리의 현실과는 너무 대조적으로 운영되는 선진 전문대학의 사례는 앞으로 우리나라 전문대학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 Ⅲ. 전국 전문대학 현황

#### 1. 전문대학 인력배출 현황

전문대학의 양적 팽창은 <표1>과 같이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전반적으로 5년마다 증가폭이 상당히 높다가 2000년부터 학교수는 증가하지 않았으나 학과수의 증가율이 두드러지게 증가하였다. 이런 현상을 세부적으로 보면 전문대학에서 필요한 전문 인력양성의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과로 변경하거나 기존학과를 세분화시키는 경향이 심하게 나타났다(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 학생모집 안내 참고).

<표 1> 전문대학 인력배출현황(1970-2001; 5년 단위)

| 구분   | 학교수 | 학과수   | 졸업자수    | 진학자수   | 취업자수    |
|------|-----|-------|---------|--------|---------|
| 1970 | 65  | 216   | 7,838   | 1,254  | 4,323   |
| 1975 | 101 | 458   | 14,106  | 1,134  | 6,375   |
| 1980 | 128 | 961   | 51,507  | 4,473  | 17,836  |
| 1985 | 120 | 1,076 | 73,927  | 6,991  | 29,556  |
| 1990 | 117 | 1,264 | 87,131  | 6,718  | 47,094  |
| 1995 | 145 | 1,987 | 143,075 | 9,972  | 88,843  |
| 2000 | 158 | 4,835 | 223,489 | 14,817 | 159,960 |
| 2001 | 158 | 5,110 | 232,972 | 16,430 | 170,986 |
| 2002 | 158 | 5,200 | -       | -      | -       |
| 2003 | 158 | 5,383 | -       | -      | -       |

자료: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특히 어문계열학과나 기타 사회실무계열의 학과를 관광계열학과로 변경시킨 경우(예; 영어과→관광영어과 또는 관광통역학과)가 많으며 타 학과 정원을 축소시키고 관광계열학과를 신설하거나 증원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런 현상은 전문대학의 교육목적과는 다른 방향으로 운영하는 사립학교의 생존전략이기도 하다.

## 2. 전국 전문대학 관광계열학과 모집현황

전국 전문대학 관광계열학과는 약 120개 이상의 대학에서 개설되어 있으며 2003년 모집정원이 관광계열인원만 약 26000여명을 모집하고 있다. 비 관광계열이지만 취업은 관광업체로 많이 진출하는 조리/식품계열 및 어학계열도 약 13000여명 이상이 되고 있다. 물론 이 자료는 모집 정원이며 실제로 자퇴나 모집 미달로 인하여 이 인원보다 적을 것으로 추정(지방대학 등록률 저조와 수도권 K대학 중도 탈락률 약10%)되지만 관광업체의 수급인원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이다. <표2>와 같이 관광계열인원을 살펴보면 서울지역은 소수지만 경기도나 인천의 경우 전체 인원의 약 20% 차지하고 있으며 학생모집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강원도나 경북지역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많은 모집정원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그 지역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인기 있는 관광계열학과로의 전환이나 증원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을 나타내고 있다.

<표 2> 전국전문대학 관광계열학과 모집인원(2003년 모집정원기준)

| 지 역 | 관광계열인원(정원/정원외) | 조리/식품계열 및 어학계열<br>(정원/정원외) |
|-----|----------------|----------------------------|
| 서울  | 520/ 76        | 760/ 135                   |
| 부산  | 2,440/ 828     | 1,640/ 470                 |
| 대구  | 1,310/ 296     | 580/ 126                   |
| 인천  | 800/ 112       | 160/ 22                    |
| 광주  | 700/ 109       | -                          |
| 대전  | 870/ 79        | 200/ 46                    |
| 울산  | 80/ 43         | 80/ 43                     |
| 경기  | 3,460/ 571     | 2,440/ 528                 |
| 강원  | 1,870/ 266     | 620/ 75                    |
| 충북  | 840/ 265       | 400/ 96                    |
| 충남  | 1,080/ 187     | 1,200/ 206                 |
| 전북  | 940/ 167       | 440/ 91                    |
| 전남  | 1,400/ 385     | 525/ 108                   |
| 경북  | 3,100/ 474     | 1,300/ 241                 |
| 경남  | 1,460/ 407     | 430/ 221                   |
| 제주  | 1,570/ 231     | 420/ 62                    |
| 계   | 22,440/4,496   | 11,051/2,470               |

자료출처: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 학생모집 안내자료 정리

## IV. 전문대학 관광계열학생의 진로 환경과 해결방안

### 1. 전문대학 관광계열학생의 진로 환경

#### 1) 관광업체

관광산업은 여러 가지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외부적인이로나 내부적 영향을 많이 받은 산업으로 알려져 있다. 외부적인 영향은 IMF와 같은 경제적인 문제나 안보문제, 사스와 같은 전염병의 사회문제 등이 되겠으며 내부적인 영향으로는 인적자원의 비중이 큰 산업인 만큼 인건비 관리가 가장 크게 작용한다.

특히 내부적인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관광업체가 추구하는 정책들이 관광관련 졸업생들의 진로를 차단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첫째, 대다수 호텔의 경우 정식 직원을 채용을 기피하고 비정규직(아르바이트나 계약직)으로 직원을 충원하고 있어 조직의 안정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조직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의 형태가 피라미드형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재 호텔들의 조직 구성원의 형태는 다이아몬드와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어 업무의 흐름이나 서비스의 질적인 저하가 지속되고 있다는 업계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다.

둘째, 관광업체의 영세성이며 이것은 취업자의 가장 관심사인 임금의 현실화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여행사 전문대졸 초봉 60-70만원, 호텔 100만원 미만 정도로 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 2) 학교

전문대학의 교육목표인 전문기술 인력의 양성에 맞는 교육과정과 업계와의 산학연계가 가능한 교육이 부족한 실정이다. 학교측에서 문제점은 첫째, 교육과정의 경우 학생들이 업계에 나가서 활용할 수 있는 교과 과정들이 편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임 교수들의 수업능력이나 전공분야에 집착하다보니 전문대학의 기본 이념과는 전혀 다른 과목이 주류를 이루고 있거나 유사과목이 중복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예, S 대학 관광영어전공-관광영어회화, 관광실무영어회화, 관광통역, 영어청취연습 등).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주문식 교육제도로 지금까지의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인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산업체 등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여 산업체 현장에서 바로 적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 제도에 따른 효과가 인정은 되었지만(영진전문대학과 대전대학에서 시범실시) 전반적인 업계 업무의 표준화가 되지 않고 대학이나 지역의 여건에 따라 또는 기술 환경의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어 대학간에도 시행방안을 둘러싸고 혼선과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연구보고, 2001: 3).

둘째, 많은 학교에서 인문/사회계열로 분류하여 실습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고 실습이 필요한 과목에 대한 실습할 수 있는 시설과 여러 가지 지원이 부족하여 학생들의 질적인 면에서 상당히 떨어진다는 것을 관광업계 관계자들이 지적하고 있다.

이런 결과로 전문성이나 경쟁력에서 미치지 못하다 보니 관련업계의 요구와 취업인력의 요구 사이에서 마찰이 일어나고 그에 따른 현상으로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전공을 살리지 않고 전혀 다른 업계에 진출하는 전문대학 졸업생이 증가하고 심지어 4년제 대학에 편입하기 위한 방편으로 여기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전문대학의 정체성을 찾아서 교육의 부실화를 막아야하며 업계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전문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 3) 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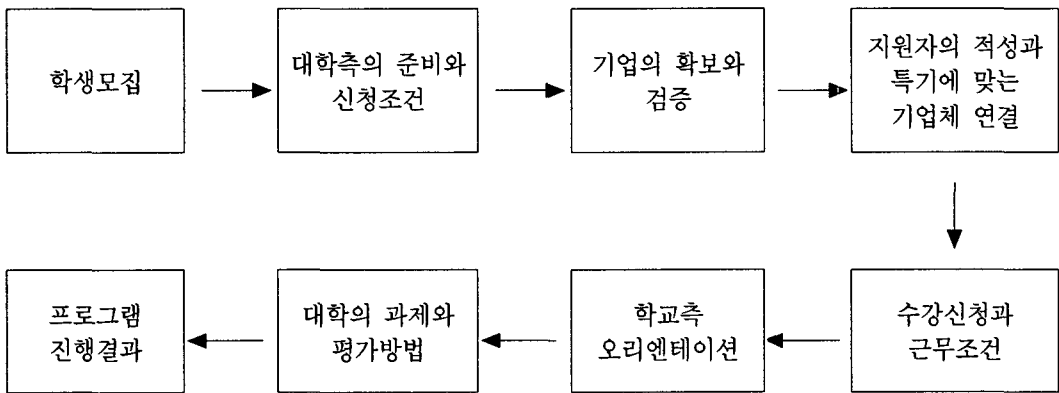
K 대학 학생들의 자체의식조사에서 관광과를 선택하게 된 배경이 학과에 대한 이해와 소신이 아니라 언론이나 드라마에서의 비추어주는 관광업계의 환상을 가지고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현상은 학생들의 관광업계의 현실 이해와 서비스 마인드가 부족한 것은 당연하며 학교에서 아무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나 인프라 구축은 무용지물이 될 수 밖에 없다. 더 심각한 것은 대학의 입학정원 미달로 인해 적성과 전공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입학하려는 학생들의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를 경우 전문대학의 교육과는 전혀 다른 진출 학생이 늘어나 개인이나 국가에 엄청난 시간 낭비와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오며 전반적인 전문 교육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호텔업계나 여행업계로 진출할 경우 처음부터 허드렛일을 시킨다든지 선배들로부터 업계의 비관적인 전망들을 듣고서 입학 당시의 환상과 달라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 2. 진로지도를 위한 효율적인 운영방안

현재의 어려운 현실은 관광업체, 학교, 학생 그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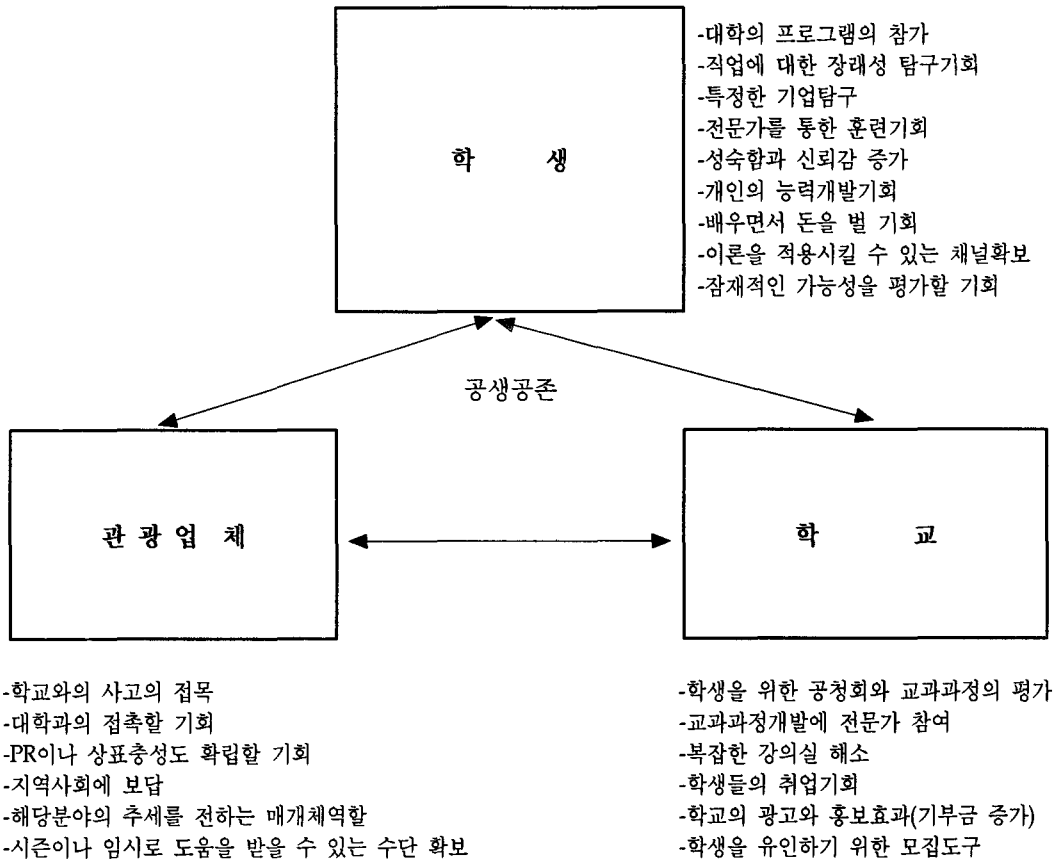
다. 문제의 해결점을 찾고 개선해야하는 숙명적인 과제를 안고 있는 이상 다양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결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3자가 상호 이해하며 공생공존(共生共存)하기 위해서는 미국 Robert Morris College의 모범적인 인턴십 프로그램의 사례를 통해 우리 현실에 맞는 실질적인 방안제시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의 운영은 곧 학생들의 취업과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학사 운영이나 기업 경영이 유리한 전략이 될 것이다.



<그림 1> Robert Morris College 인턴십 프로그램의 진행과정

<그림1>에서와 같이 먼저 지원 학생모집하고 학교에서 필요한 서류와 학생의 신청조건들을 확인한다. 그 다음 해당 학생들이 원하는 기업의 확보와 확보된 기업에 대해 충분한 검증절차를 거친다. 또한 지원학생의 적성과 특기에 맞는 기업체와 연결하고 인턴십을 받는 학생들의 인턴십 수강신청과 근무조건을 확인한다. 다음 지원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기업의 요구사항과 학칙에 관한 교육 및 인턴십 과정 중 레포트와 평가방법을 제시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 대학은 공급자나 수요자에 맞는 프로그램을 철저히 진행함으로써 이 프로그램을 경험한 학생들은 해당기업에 취업과 연계되거나 개인의 실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으며 기업에서는 우수한 인력을 사전에 선발할 수 있어서 상당히 효율적인 프로그램으로 평가 되었다. 이런 부분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강제적인 산학실습과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해당 학생 모집부터 진행과정이나 마지막 프로그램을 마칠 때까지 학교, 기업, 학생이 일치되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본다.

이와 같은 인턴십 프로그램의 운영상 이점을 살펴보면 <그림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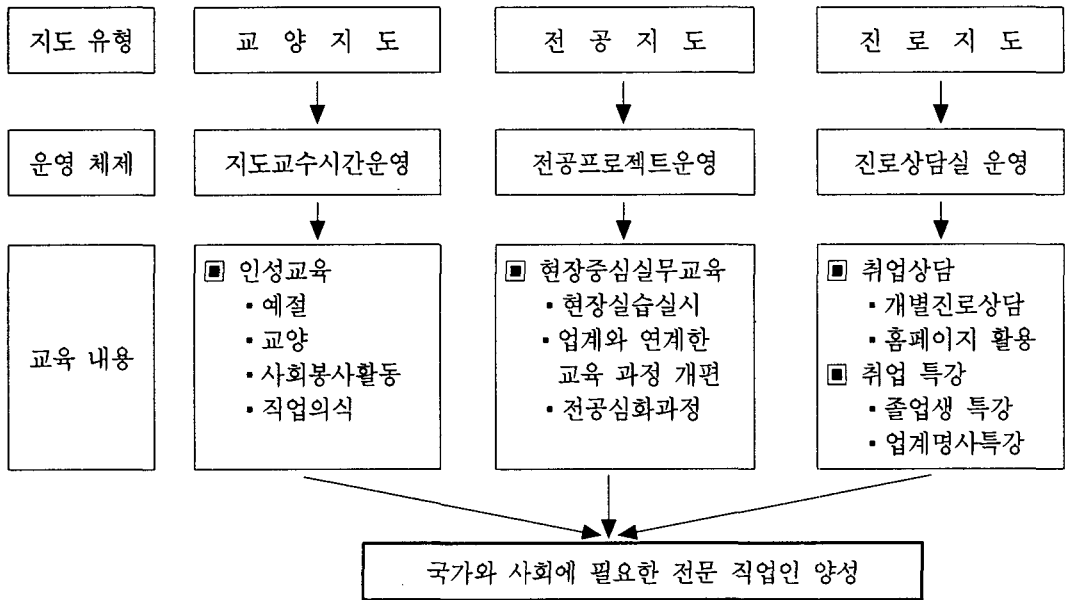
〈그림 2〉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한 상호 관계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이것을 진행하는 입장과 수용하는 입장과 주위의 환경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그림에 불과하다. 따라서 3자(기업, 학교, 학생)에게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들이 이루어 져야 한다.

| 학 교   | 관 광 업 체  | 학 생  |
|---|--|--|
| -산학협력유지<br>-실습시설 및 장비구축<br>-전공실무교육확대<br>-인성 교육 강화<br>-업체관계자들의 특강실시<br>-학생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 -인턴십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활용<br>-인턴십 환경개선<br>-현실적인 임금 지급<br>-인격적인 대우 | -진로에 대한 자신감 회복<br>-충분한 능력배양<br>-적극적인 자세<br>-관광업체의 이해 |

〈그림 3〉 효율적인 인턴십을 위한 요구사항

첫째, 학교는 산학연계를 통해 업계에서 요구하는 양질의 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지속적인 산학협력을 유지하며 교재의 공동개발이나 시설의 확충, 인성 교육의 강화, 관광업체를 이해할 수 있는 업계관계자들의 특강실시,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수준에 맞는 교육실시가 요구된다.



〈그림 4〉 효율적인 학생지도 방안

둘째, 관광업계는 조직의 안정과 관광업계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새로운 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인턴십 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용으로 좀더 효율적인 인력정책과 임금의 현실화를 추진하여 직업으로 선택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셋째, 학생들은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노력과 투철한 직업의식을 갖고 현실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단순히 인기학과라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적성과 자격조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지속적인 자기개발의 노력이 필요하다.

## V. 결 론

기업의 효율적인 운영의 핵심은 인사 관리 시스템이다. 얼마 전까지 각 산업체 조직의

하부구조 인력의 충당을 고등학교 졸업생 중심으로 수용하다가 근래의 많은 전문대학 졸업생들이 그 자리를 선점하고 있어 전문대학이 추구하는 전문 기능인의 배출이 퇴색되어 가면서 전문대학 역할론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앞에서 전문대학 관광관련학과 현황과 학생들의 진로환경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관광인력정책의 한축으로 사료되며 인적자원의 비중이 높은 관광산업의 더 큰 사회 문제가 되기 전에 해결점을 찾고자 하였다.

외국의 사례에서 제시하였던 바와 같이 체계적이고 다양한 전문대학의 교육과정과 프로그램과는 달리 일부이지만 국내 전문대학 관광계열의 교육환경과 학생들의 진로과정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현재 전문대학 관광계열의 무분별한 증원, 교육과정이 관광업계가 필요로 하는 교육이 되지 않고 있으며 실습을 위한 기초 실습장이나 교육 여건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 또한 관광업계의 문제점으로 졸업생들의 진로에 최대 장애요소인 정규직 기피현상과 비현실적인 임금체계, 업무의 표준화되지 않는 등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직업의식 부족하다. 더 심각한 것은 대학의 입학정원 미달로 인해 적성과 전공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입학하려는 학생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으로 전문대학의 교육과는 전혀 다른 진출 학생이 늘어나 개인이나 국가에 엄청난 시간 낭비와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오며 전반적인 전문 교육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전문대학 관광계열 졸업생들의 원활한 취업으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 실업을 줄이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교육환경개선, 관광업체에서는 취업환경조성, 학생들은 취업에 필요한 충분한 소양교육과 능력을 겸비하여야 할 것이다. 3자가 상호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야 하며 단기적인 계획이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상호 접근할 필요가 있다. 특히 Robert Morris College의 모범적인 인턴쉽 프로그램처럼 철저한 관리체계를 세우고 진행된다면 서로가 다양한 이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교육정책 입안자들은 현재의 전문대학의 역할을 이해하고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계획성 없는 행정과 방만한 학교 운영의 결과는 향후 관광산업에 커다란 악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 Abstract

The goal of junior colleges is to conduct professional education. But that purpose itself has

faded for the distortion of goal.

This study is geared to present solution to the problems facing tourism majors of junior colleges. What cause these problems is, first, imprudent increase of recruitments in the popular area, second, tourism companies tendency not to give them proper career opportunities, finally, lack of professional consciousness.

To solve these problems, improvement of educational circumstance of junior colleges enlargement of the career opportunities of tourism companies are necessary and on the part of students, they need to receive enough education for personality and the enhancement of ability.

## 참 고 문 헌

- 김종철 외(1997), “직업기술교육 체제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 한국교육개발원.
- 김태기(1998), *교육이 변해야 미래가 보인다*, 서울; 현대문학.
- 김현숙·김송윤(2002), “외국전문대학들의 교육과정 사례”, *정보처리학회지*, 9(5), p 62-75.
- 문승한(1992), “전문대학 교양교육과정의 모형개발에 관한 연구,”*동아대학교 박사과정 논문*.
- 박인호(2000), 성공적인 인적자원 투자관리 방안, *LG주간경제*, 7월19일자, p 37-43.
- 신현석(2000), “1990년대 전문대학 개혁정책의 분석연구”, *교육학연구*. 38(2).p 193-200.
- 이해수 외(2001). “전문대학의 다양한 주문식교육 시행방안”,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연구보고 제 2001-8호*.
- 장석민(1997), “직업기술교육, 한국교육의 신세기적 구상; 2000년대 한국교육의 방향과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 정태용 외(1995), “전문대학 교육제도 발전방안”, *교육부*.
- 정태화 외(2000), “전문대학 직업교육 다양화를 통한 인적자원개발 방안 연구”. *교육부*.
- 최귀덕(2002), “전문대학 관광계열학생들의 직업의식 분석 자료를 통한 진로지도방안”. *문화관광연구*. 4(2). p 287-310.
- Thiel, G.R. & Hartley, N.T.(1997) Cooperative education ; a natural synergy between business and academia, *SAM Advanced Management Journal*, 62(3), p 19-24.
- Downey, J.F.& De Veau, L.T.(1988) *Hospitality internship : an industry view*, *The Cornell H.R.A Quarterly*, 29(3), p 18-20.